

진정한 건축사의 자존심

The Real Pride of the Architect

김석환 / 터·울건축사사무소

by Kim Suk-Hwan

필자가 89년도 건축사 시험에 합격되면서 가장 반가웠던 말은, 이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먹고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들은 것이다. 진정한 건축을 추구하는 의미와 거리가 먼 우스개 소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속으로는 남이 기대하는 것보다 욕심 덜 부리고 지탱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하고 생각했었다.

필자가 실무를 배우고 응시 조건에 맞는 경력을 쌓아 갈 즈음의 분위기로 보면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언젠가 한 해는 13명만 뽑을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필자가 속했던 설계실의 훌륭한 선배들이 시험에 어려해 떨어지고는 설계가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다. 건축사 자격시험이 건축설계의 능력을 다 검증해 보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격을 갖춰야 건축적 저작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으니 건축가의 길에서 나오지 않고 나아가기가 참으로 험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필자는 건축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 꼭 건축사가 되고 싶었다. 그만큼 절실히 여겼던 덕분인지 첫 시험에 합격했고 시험의 스트레스로부터 일찍 벗어나게 된 것이 좋았다. 필자의 친구들 가운데는 훨씬 늦게까지 그 스트레스를 받다가 늦게 취득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 후 선발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 건축기사 시험 같다느니 하는 말도 나왔지만, 어쨌든 건축사 자격이 법적 뒷받침을 갖는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효력을 지니고 있고, 그에 상응한 건축관계자의 인식도 사회적으로 자리잡고 있기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면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겉으로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 회원들 마음 안에서부터 어려운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생업으로서의 자신감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듯 하다. 수입면에서 볼 때 여러 직업 가운데 평균소득이 아주 낮은 형편일 것이다. 수입의 과다를 먼저 헤아리는 것이 본질과 다른 의미일지라도 어쨌든 직업인으로서 건축사의 형편이 어렵게 변한게 분명한 듯 하다. 회원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럼없이 삶의 태도로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 형편이 그런데도 회원명부를 보고 보낸 듯 골프회원권을 사라든지, 콘도 회원권을 사라든지 기타 투자 정보를 알려오는 우편물이 많다. 그것을 보면 외부에서는 아직 건축사가 처한 어려움의 속내를 모르는 듯 싶다. 또 언론에서는 가끔씩 싸잡아 고소득 전문가로 분류하며 오히려 보험료라든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 어려워진 건축설계 여건의 변화를 대하면서도 생각의 차이에 의해 인식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가도 본래 화가와 같은 예술가의 길이니 본래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자조한 느낌도 덜해질 것이다. 유럽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한 인식 속에 건축가가 자신을 뜻을 세우고 일해 온 풍토였다고 한다. 관점을 달리해서 건축가도 화가와 같이, 자신이 하고 싶어 택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왜소한 느낌도 많이 완화될 것이다. 건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기에 순수한 열정에 사로잡힌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현실에 임하면서 건

축을 잘하고 싶은데 사회인식이 따라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사회의 인식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못마땅한 현실에서 부대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꼭 그 때문만은 아니며, 어느 샌가 슬그머니 현실 속에 안주하여 왜소해진 자신들을 발견하는 것일 수 있다.

이 땅에 자취를 남긴 예술가들 가운데는 자신의 예술을 추구하기 위해 가난을 마다하지 않은 이들이 많았다. 화가 박수근 선생의 딸 박인숙은 「아버지의 65년 사후에, 70년대를 지나면서 아버지의 그림 값이 치솟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림 하나가 웬만한 집한채 값이라는 예기도 들었습니다. … 일생을 통해 아버지가 벌었던 돈보다, 당신의 그림 몇 점이 더 많은 돈과 교환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만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버린 몽당연필로 그린 아버지의 스케치 한 장이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고 원하시던 유화물감을 얼마든지 사다 놓으실 수 있는 값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아버지가 그린 그림의 예술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돼 교화가치로만 따질 수는 물론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왠지 자꾸 섭섭해집니다. 왜 아버지는 생전에 그 편찮은 몸을 단지 돈이 없어서 택시를 타실 수 없었고 항상 힘겹게 끌고 다니셔야 했는지요. … 「아버지가 생전에 게실 때 그 그림 한 장 값을 받았으면, 종이 살 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렸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눈시울을 적신 적이 있었다. 또 고희는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지만, 그것을 생계 수단과 결부해 본다면 주문 없는 일방적인 생산인 셈이다. 그러나 팔리지 않았지만 그 작품에 대한 평가는 어느 순간으로 단정할 수 없었다. 1987년과 1990년에 그의 그림이 세계 최고의 그림 값을 세번이나 연거푸 갱신했다. 그러나 결과가 그런 것이지 어쨌든 작가가 생전에 돈을 의식하고 하는 일일 수는 없었다.

일본 우에노 공원에 있는 서양미술관에는 근대화화의 걸작이 많다. 그런데 그 그림들은 마쓰카타(1865~1950)라고 하는 한 개인의 열정에 의해 수집된 것인데,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저어기 놀랄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림들은 2차대전중 프랑스의 창고에 숨겨져 있었지만 종전 후에는 압수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일본국 전권 대사 요시다 시게루는 프랑스 전권대사에게 마쓰카타 컬렉션을 돌려 받고 싶다고 했고, 국제교섭의 무대위에 올려져 절충을 거듭한 우여곡절끝에 몇 점을 빼고 일본에서 돌려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반환 조건을 달았다. 첫째 그 미술품을 수장하고 전시함에 어울리는 미술관을 지을 것, 둘째 그 미술관은 프랑스 정부가 추천하는 건축가에게 설계를 위촉하고 프랑스 정부 관리가 감리토록 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 조건의 이행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는 설계자로 르 꼬르뷔제를 추천하였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르 꼬르뷔제의 건축작품이 남아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설계한 서양미술관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 이상으로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르 꼬르뷔제는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 까다롭기로 유명하였다. 일을 진행하다가도 트러블이 많아서 계속 말지 못한 때도 있었다. 뉴욕의 국제 연합빌딩의 초안도 그가 만들었으나,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렵다며 사양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작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평생 자신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만을 만들려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역사상 건축은 숭고히 여겨져 왔다. 좋은 건축은 결국 먼 훗날까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왔다. 채석장의 돌은 그냥 돌일 뿐이지만, 작가의 손에 조각되면 그것은 원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띤다. 모든 건축도 그와 마찬가지로 작가에 의해 한낱 건축자재가 아닌 생명력을 띠고 태어나는 정신의 산물인 것이다. 그런데 이 시대 건축설계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아쉬운 풍토에 처해 있다. 현실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건축주들이 직접 설계자를 찾아 의뢰하기 보다, 이른바 건축업자에게 달려가는 풍토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이 여기저기 설계사무실에서 가설계를 받아본다고 한다. 가설계란 계획설계를 말한다. 계획설계는 눈에 드러나 보이는 성과물은 적어 보일지라도, 설계과정중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다. 창작이 중요한 것이기에 시장 원리로 보아도 응당 제대로 돈을 받아야 한다. 백지에 무엇인가를 그려 넣으면 그것은 작가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에 건축사의 자존심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훌륭한 성과물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계약하기전 할지 안할지 의구심을 가진 상태에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소홀히 그리다 보면 훌륭한 성과물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소홀히 그려준 도면은 결국 건축사들의 자존심을 깎게 된다. 따라서 현실에서 가설계라는 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건축사들이 돈을 받기 전에 도면을 그려 주지 말아야 한다. 계약을 한 후 일이 진행되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건축사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장르를 떠나 모든 예술가의 작품은 작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필자는 건축에 입문할 즈음 부르노 타우트가 쓴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감명깊게 읽은 기억이 있다. 원래 제목은 건축에 대한 〈고찰〉이었다. 그 책 뒤에는 그의 일기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나는 이 글을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이다. 내가 어느때가 죽게 되면 유고로 될 것이다. … 내가 25년전에 지금과 같이 고찰하고 반성하였다면 그 후의 내 경력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고 했다.

진정한 인간의 격은 신분으로서의 구분이 아닌 스스로 설정한 인간상에 걸맞게 되는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 과거에 선비들이 그랬듯이 부단히 자신을 연마해야 할 것이다. 우리 건축사들도 스스로 세웠던 작가적 사명을 되새기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좋은 건축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건축사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대중이 인식할 때 우리의 역할이 뜻대로 되어지는 풍토가 뿌리내리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